

# 심장이식 5년만에 엄마가 되다

### 광주 출신 이은진씨 출산 성공 '국내 첫 사례'... "나와 같은 여성에 희망 되길"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광주 출신 30대 여성이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동안 간·신장 이식 환자의 출산 사례는 있었지만 심장이식을 받은 여성의 출산은 우리나라 처음이다. 심장 이식 환자 중 가임기 여성은 150여명으로 알려져져 출산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3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은진씨(여·37)씨는 지난 1월 9일 이 병원에서 2.98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씨는 10여년 전 심장근육의 문제로 심장이 비대해지는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 지난 2013년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6년 결혼한 후 임신을 계획했다. 여성이 심장이식을 받으면 태아의 선천성 기형과 자연유산 확률이 높다는 해외 연구결과 등이 있어 남편 등 주변에서는 이씨의 건강을 염려해 임신을 만류했다. 하지만 이씨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출산에 성공했다.

이씨는 "심장이식 수술 후 헬스 등 운동으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왔다"며 "임신 전 주치의와 함께 이식 장기의 거부반응, 콩팥이나 간 기능, 복용 중인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임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임신 중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임신한 이씨는 정기적으로



심장이식 수혜자 중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산에 성공한 광주 출신 이은진씨가 아들 오강현군을 돌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제공>

병원을 찾아 이식된 심장의 기능과 거부반응 유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했다. 다행히 임신 중임에도 체중 및 약물 조절이 잘 됐고 건강에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

올해 초 출산을 앞두고 병원 마취과에서는 심장이식 수술력이 있기 때문에 전신마취 후 제왕절개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씨의 심장질환 관리를 꾸준히 해 말아온 김재중 심장내과 교수는 척추

마취 후 제왕절개를 해도 될 것 같다고 마취과를 강하게 설득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의 기쁨을 이씨가 경험하도록 한 배려였다.

지난 1월 9일 이씨는 원혜성 산부인과 교수의 집도로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분만실에서 처음 아이를 만난 이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심장이식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었지만

의료진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어 두렵지 않았다"며 "건강하게 태어나준 아이에게 고맙고, 나와 같은 여성들이 엄마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재중 교수는 "이씨를 통해 심장이식 가임기 여성들도 새 희망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아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심장이식 환자가 임신을 시도할 경우 면역억제제를 줄여야 하므로 주기적인 검사로 적절한 혈중 약물 농도를 유지하는 등 의료진의 관리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장기이식센터(KONOS)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1391명이 심장 이식을 받았다. 이중 150여명이 가임기 여성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임기 심장이식 수혜자는 수술 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이식된 심장의 기능이 안정적이고 건강이 회복됐다고 판단될 때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임신을 시도할지 결정하게 된다.

임신 후에는 이식된 심장의 기능, 거부반응, 감염, 임신중독증, 당뇨 등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된다. 산모의 건강에 따라 자연분만과 제왕절개가 모두 가능하다.

원혜성 교수는 "심장을 이식받은 여성은 약물복용 등으로 인한 여러 위험성이 있는 만큼 임신 전부터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야 한다"며 "임신 중에도 산모의 굳은 의지와 의학적 처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희기자 kimyh@kwangju.co.kr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 생존자와 유족 등 1만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참석해 추도사와 참배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제주신보 고희승기자>

## "4·3의 완전한 해결 위해 나아갈 것"

### 문 대통령 제70주년 추념식 참석... 대통령은 12년만

제70주년 4·3희생자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를 주제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한 이번 추념식은 대통령 내외 현화·분향, 국민의례, 순국선열·호국영령·4·3영령에 대한 묵념, 추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7·17면>

이번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도민,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 각계 인사 등 1만5천여 명이 참석해 4·3영령을 추모했다.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한직 대통령은 4·3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사과한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추념식에서는 350여 명이 희생된 복촌 사건을 소재로 소설 ‘순이삼촌’을 써 4·3을 전국에 알린 소설가 현기영이 추모글을 낭독했다.

또 제주에 이주한 가수 이효리가 작곡가 김형식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추모시를 낭독했고, 가수 이은미는 ‘필레꽃’을 부르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행사 말미에는 4·3 유족 50명으로 구성된 4·3평화합창단이 제주도립·시립 합창단과 함께 4·3의 아픔을 그린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를 처음으로 합창했다.

추념식이 끝난 뒤에는 유족과 도민, 국내외 참배객들이 현화·분향하고 위패봉안살과 행방불명인 표석 등을 돌아보며 영령의 명복을 빌었다.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부산, 광주 등 전국 20여개 도시에 분향소를 운영한다. 정부는 4·3이 발발한 4월 3일을 2014년 국가 기념일인 ‘제주 4·3희생자추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국가의례로 추념식을 봉행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 전남도 구제역 방역대상 가축 백신접종 총력

### 내달까지 접종 완료

전남도가 구제역 방역대상 모든 가축에 대한 백신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3일 밝혔다.

백신 유형은 ‘A형’이 포함된 O+A형인 2가 백신이다.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1단계로 어미돼지는 3월까지, 2단계로 소·염소를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3단계로 어미돼지를 제외한 돼지에 4월말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날마다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고,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1단계 어미돼지 10만1000마리를 접종했고, 지난 2일 2단계로 소 49만9000마리와 염소 8만마리 등 총 58만2000마리에 대해 백신 접종 마쳤다. 현재 백신 접종률 41% 수준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소·염소는 O+A형인 2가 백신을 접종해왔으나, 돼지는 ‘A형’이 발생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O형’ 백신만 접종했다.

백신 비용은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돼지농가에는 100% 보조 지원한다. 소·염소·시슴의 경우 소규모 농가는 100%, 전업농가는 50% 보조 지원한다.

김상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정경지역 유지에 위해 가축시장 일시 폐쇄, 돼지농장 간 이동 금지, 매일 소독 및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제역은 백신접종만 하면 100% 방어 가능하므로 한 마리도 빠짐없이 접종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은 올해 경기 김포 돼지농가에서 2건이 발생했다. 전남은 지금까지 발생한 사례가 없다. /박정욱기자 jwpark@

## 완도 섬 식수난 해소 지하저류지 설치키로

가뭄으로 고통받는 완도 섬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해 지하저류지가 설치된다.

전남도는 3일 완도 보길도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완도군, 케이워터(한국수자원공사)와 노화·보길도 지하저류지 설치 업무협약을 했다.

지하저류지는 지하 대수층(물을 보유하고 있는 층)에 인공 저수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저장하고 바닷물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친환경적 지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익산국토청은 기관 간 역할 분담, 협력을 총괄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예산 확보, 인·허가, 민원 등에 협조하고, 케이워터는 지하 수자원 확보 시설 설치를 위한 조사와 기술 지원 등에 나선다.

완도 노화도와 보길도는 지난해 전체 강

수량이 619mm로 평년(1193mm)의 52%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부터 제한급수(4일 단수)로 주민 8000여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 협약 기관들은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후 내년 공사를 착수해 2020년부터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섬지역의 근본 가뭄 해결을 위해 지하저류지 설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동식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기관 간 단순 협의 수준을 넘어 주민 불편사항인 제한급수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협업으로, 보길도·노화도 가뭄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뭄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시군, 중앙부처와 협업체가 몸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국·임야**  
바로 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010-3598-7080

**풋살구장 매매(급매)**

시청에서 9분, 전남대에서 14분!!

상황중 즉시이용 가능(최근완공)

풋살구장4면+사무실+손님휴게실+사위장+화장실

토지 약600평(구장 1천평, 주차장 600평)  
토지 임대(매매안함)  
(CCTV 등 시설 및 관련 물품포함)

◆ 시세가 3억 3천 ◆  
매매가 2억 6천 5백

구장운영자 010-6603-0680